



전시회 '대동여지도 목판과 김정호' 전

지리 지식보급에 애쓴 김정호의 삶과 꿈

문제 하나.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오'다. 대동여지도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팔도지도'와 '동국지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최초라는 수식어는 붙일 수 없지만 대동여지도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전통을 집대성해 만든 역사적인 지도로 일컬어진다. 이는 목판에 각종 지리정보를 판각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리 지식의 폭 넓은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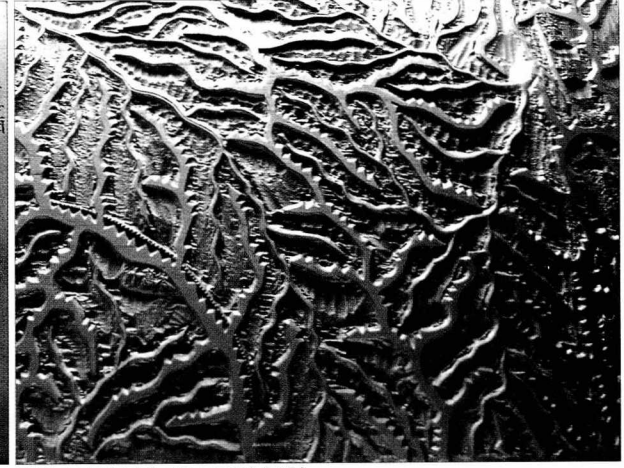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동여지도와 이를 인쇄하는데 실제 사용된 목판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동여지도 목판과 김정호'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도 제작에 실제 사용된 목판 9매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 지도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찍어 낸 실제 목판을 집중 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회다. 현재 이 목판으로 인쇄한 대동여지도 초간본(1861년)과 재간본(1864년)이 함께 비교 전시되고 있으며 모두 9매의 목판이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대동여지도 인쇄 제작에 사용되었던 목판 11매가



대동여지도 초간본(1861년)



함경도 장진 일대 지도 목판(제4층)

소장되어 있다. 이는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우리나라 지도문화의 우수성을 실증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1862년 유재건이 쓴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 따르면 대동여지도 목판은 김정호가 판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지리학에 심취했을 뿐만 아니라 판각에도 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동여지도 목판은 수령 100년 정도의 피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목판의 크기는 가로 43cm, 세로 32cm 정도이다. 앞뒤 양면에 모두 판각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면에는 남북으로 120리, 동서로 160리 정도 되는 공간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다. 산줄기와 물줄기를 바탕으로 고을, 교통로와 통신시설, 통신시설, 군사시설 등의 각종 정보를 목판 위에 정교하게 조각했다. 대동여지도에 조각된 지명 등 주기의 총수는 1만3천여개에 이른다.

산줄기는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 붙여 산줄기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바탕으로 톱니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물줄기는 곡선으로 표기하였고, 교통로는 직선으로 표현하여 양자가 혼동되는 것을 피했다. 목판이 완성된 것은 1861년이지만, 그 후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그 흔적이 목판 곳곳에 남아 있다.

정확한 지도 완성을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

김정호는 조선 철종 12년에 대동여지도 목판을 인쇄하여 초간본을 세상에 내놓았지만 그의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초간본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해서 고종1년에 재간본을 간행했다.

대동여지도 초간본과 재간본을 비교해보면 군데군데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 차이는 바로 이러한 수정 작업의 결과인 셈이다. 수정 사항에는 오자의 수정을 비롯해 누락된 지명의 보충, 지형·경계·도로의 수정, 잘못된 위치에 표기된 지명의 위치 수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목판본인 성격상 대동여지도의 수정을 위해서는 목판의 판각 내용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김정호는 경상도 성주 지역의 안언역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당초의 판각 내용을 도려내고 정확한 위치에 새로 조각한 글자 조각을 붙였다. 또한 함경도 장진의 십만령 부근의 군현 경계가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위해 이 부분을 도려내기도 했다.

경제적인 조각으로 활용도 최대한 높여

대동여지도 목판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목판의 여백에 또 다른 지도가 함께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목판 면 전체에 조각이 되어 있지만, 일부 해안·도서지역을 조각할 때에는 전체 목판면의 일부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즉 여백으로 남은 공간에는 다른 지역의 지도를 조각함으로써 목판의 활용도를 높였던 것이다.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

① 원도의 제작

김정호는 그의 시대까지 축적된 조선 지도학의 성과를 종합하여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 실학자 최한기 등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의 수많은 지도와 지리관련 서적을 참고했다. 단 그가 직접 전국을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했을 가능성은 적다.

② 목판용 판재의 가공

수령 100년 정도의 피나무를 베어 판재를 만들고, 이것을 소금물에 넣고 삶아 뒤틀림을 미리 방지했다. 이어 판재를 다시 알맞은 크기로 재단해서 목판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목판의 인쇄에 적합하도록 표면을 평평하고

고르게 하는 가공을 거쳤다.

③ 목판에 지도 부착

정성스럽게 준비된 목판 위해 지도 원도를 뒤집어 붙이고 그 위로 기름을 먹여 조각할 부분이 잘 비춰 보이게 했다.

④ 목판의 조각

이항견문록에 따르면 김정호는 조각에 능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정호는 최한기의 <지구전후도>를 판각하기도 했다. 목판에 비교적 다양한 조각 기법이 활용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김정호를 보조하는 각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⑤ 목판인쇄

목판위에 먹물을 정성스레 칠하고 그 위에 한지를 덮은 뒤, 머리털을 밀랍으로 뭉쳐 만든 도구를 문질러 인쇄했다. 대동여지도 목판에는 먹이 시커멓게 스며있는데, 이것으로 미뤄보아 인쇄산업이 상당히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⑥ 대동여지도의 제책

이렇게 인쇄·제책된 지도들은 두툼한 종이 위에 솜씨 있게 붙여서 책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책은 마치 병풍과 같은 형태를 띠도록 만들어,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도록 했는데 모두 22권을 만들어 우리나라 전체를 수록한 대동여지도 한 질이 완성된 것이다.

현존하는 대동여지도 목판 가운데는 함경도 명천 지역과 단천 지역 등 2개 지역을 한 면에 함께 조각한 경우도 있고, 평안도 용천 지역, 함경도 북청 지역, 경기도 교동 지역 등 3개 지역을 함께 조각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의 지도가 한 면에 함께 조각된 경우에는 인쇄하고자 하는 부분에만 먹물을 발라 일부만을 인쇄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필요한 지도 부분만을 인쇄하여 적절한 위치에 편집하였던 셈이다.

근대적 측량기술로 제작된 지도에 버금

목판 인쇄본으로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동서 방향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각 층의 지도는 1권의 책으로 묶어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도록 해서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6.7× 3.8m의 대형 전국지도가 된다.

대동여지도는 산줄기와 물줄기의 표현이 정확하고 상세하며, 현대지도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줄기는 곡선으로, 도로는 직선으로 표현하여 구분이 쉽도록 하였고, 특히 도로에는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전통을 집대성한 최고의 지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록 부족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 많아

김정호는 1834년 청구도(靑邱圖)를 시작으로 동여도와 대동여지도 등 3대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모두 제작했고, <여도비지>, <동여도지>, <대동지지> 등의 지도도 편찬했다. 하지만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은 편이다. 때문에 대동여지도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한 뒤 2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답사하고 실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을 답사하기 보다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지도를 모아 집대성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판각본을 홍선대 원군에게 바치자 그 정밀함에 놀란 조정에서는 국가 기밀을 누설한다는 죄목으로 각판을 불태우고 간행을 금지했으며, 김정호는 투옥되어 옥사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일제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도제작 전통과 김정호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 관람, 대동여지도 관련 강연 및 영상물 상영, 대동여지도 목판 인쇄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를 위한 신청 안내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통해 공지된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